

전북 쌀 광역브랜드 출시 기념

도내 범농협, '예담채 심리향미' 경품·홍보 실시

내달 1일부터 이벤트 응모 고객 중 20명 추첨 경품 지급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옥구농협(조합장 전봉구), 대야농협(조합장 민운기)과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여의동 비석빌로 20)에서 전북 쌀 광역브랜드인 심리향미의 올해 첫 출시 기념으로 심리향미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홍보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경품 행사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심리향미를

구입하고 이벤트행사에 응모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입력밥솥, 선풍기, 심리향미 10kg 등을 지급한다. 또한, 홍보행사로 25일부터 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5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심리향미 500g을 매일 300개 한정 총 2천개를 지급한다.

'예담채 심리향미'는 전북을 대표하는 품종인 신동진과 함께 향기 나는 쌀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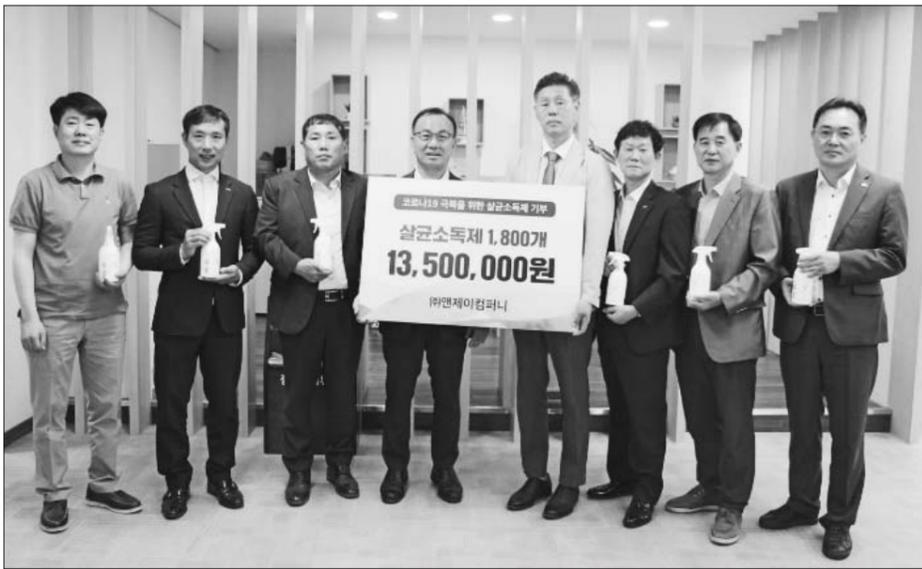


북을 대표할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담채 심리향미'는 온라인 마켓인 농협몰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우체국쇼핑,마켓컬리,전라북도 거시기 장터 등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하나로마트 전주점, 울산점, 고양점 등에 입점해 판매되고 있다.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전북 쌀 광역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가 널리 사랑받길 바라고,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살균소독제 1800개 기부행사가 열렸다.

도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성과 공유

엔제이퍼머니, 살균소독제 1800개 지역 중기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주)엔제이퍼머니 주남진 대표, 두원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 중소기업회장, 전북협동조합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상생형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성과공유의 시간을 갖고 스마트공장 확산에 중소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 소재 친환경 살균소독제 제조업체인 (주)엔제이퍼머니는 중소벤처기

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전라북도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장운영, 충전공정 제조자동화 등을 추진해 시간당 생산량이 2천개에서 3천개로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대폭 증가했다.

한편 이날 기부행사는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살균소독제 1,800개를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

했다.

전북지역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작년에 36개 중소기업이 구축된 바 있으며, 올해도 60여개 기업이 사업신청해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두원정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제조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질 필요가 있다"며 "전북지역 중소기업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지수 51.5p

전년대비 17.1p ↓

'내수 부진' 이 주 애로요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9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경영여로 및 2020 하반기 경기전망지수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I)는 51.5로 전년동기 68.6보다도 17.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10곳 중 7곳이 '악화' 되었다고 응답(SBI 기준 9.6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로 인한 기업경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항목별 경기 체감실적 및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공장가동률 모두 전년보다 크게 악화됐다. 역계열인 인력수준·재고수준·설비수준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과잉 수준으로 조사됐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경기상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반기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애로요인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겪은 애로요인은 내수부진(80.4%)이 가장 큰 것에 이어 자금조달 곤란(38.6%), 최저임금 상승(32.2%)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요인 역시 내수부진(79.1%), 자금조달곤란(39.0%), 업체간 과당경쟁(31.7%) 순으로 나타나 '내수위축'과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상반기에 겪은 대외적 애로요인은 수출물량감소(6.1%), 수출곤란(5.9%), 환율급변동(4.9%) 등의 순이었으며, 하반기 애로요인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에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12.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출도움은 제조업(8.7%)보다는 서비스업(16.0%)

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잘함 5점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 등 감면·납부유예(3.78) △기존대출 연장 및 금리인하(3.72)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3.67)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경기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인하 및 각종 부담금 인하(72.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54.8) △특별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53.5) 등의 정책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위축과 수출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경영실적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업경영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매출감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자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한국형 벼 생산예측시스템 개발

농진청, 정확도 98% · 쌀 생산 수급 정책에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5일 한국형 벼 생산예측 시스템(K-RPPS, Korea Rice Production Prediction system)을 개발해 올해 벼 생육을 전망하고 쌀 생산량을 예측했다.

K-RPPS는 기존 국제미작연구소 모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여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예측 시스템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K-RPPS의 벼 생산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기상과 벼 생육 자료를 수집, 기록해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빅데이터에는 질소 흡수로 인한 벼알 수의 변화, 등숙(여물기) 등 벼의 생물적 특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와 17개 연구 지역에서 수집한 쌀 수량과 기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

K-RPPS를 활용하면 정부 최종 생산 발표인 11월보다 2달가량 빠른 9월에 예측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평균 예측 정확도는 98%를 웃돈다.

올해부터는 모내기 직후, 이삭이

떨 때, 벼가 익을 때 등 시기별로 3회 이상 생산량을 예측하고, 기상 에 따른 벼 생산량 변화를 추적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K-RPPS를 활용해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513kg/10a)보다 많고 평년(529kg/10a)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높은 온도로 벼의 생육이 빨라지고, 품종에 따라 외관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벼 생육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삭 패는 시기는 작년에 비해 전 국적으로 평균 이틀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K-RPPS를 활용, 모내기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생육상황을 예측해 선제적인 재배관리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의 국내 쌀 생산 수급 정책과 가격 안정, 농가의 운영 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카드, 농협하나로마트

전점 제휴 이벤트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5일부터 JB카드 농협하나로마트 전점 제휴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와 농산물 및 생활필수품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JB카드로 행사상품 구매시 최대 3천원까지 현장 할인이 적용된다. 주요 행사상품으로는 수박, 자두, 햇감마늘, 한우불고기 등 계절 농축산물과 HANARO&OK!COOK 등 PB상품 모음집, 대표 가공품·생활필수품 등 73여개 품목이다.

더불어 JB카드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 업종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전액 무이자 할부룰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소비시장 활성화와 JB와 함께하는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벤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 뉴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당회 등 바이어 대면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활로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을 정례화했다. 지난 4월 3일 인도를 시작으로 10개국 64개 바이어와 도내 116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 행사는 성장세가 완만한 신북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지 바이어 중 화장품, 식품 관련 9개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도내기업 20개사와 62건의 집중상담(상담액 352만달러)을 진행했다.

상담회에 앞서 도내 업체의 샘플을 수집해 러시아 파트너 사에 보내 바이어가 상담 전 제품을 받아보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업체들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파트너사 대표

전북대병원, 근감소증

진단 첨단 골밀도 시스템 도입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고령의 연령층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근감소증(Sarcopenia)을 진단하는 최첨단 골밀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2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종내치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을 통해 근감소증(Sarcopenia) 진단이 가능한 골밀도 장비를 핵의학 과 골밀도 검사실에 신규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전신용 엑스선골밀도측정기로 미국식품의약국(FDA)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로 근감소증의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노화에 따른 근육 및 근속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 근육의 양과 통시에 근력의 감소 및 기능의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자각에 취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이 증상은 근육량 감소, 근력감소, 근육수행능력평가로 진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근감소증은 골다공증과 함께 빈도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신경외과·내분비내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및 류마티스내과 등 많은 과에서 근감소증과 질병이 미치는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수도권 이남 최초로 최첨단 골밀도 시스템인 전신용 양방사선골밀도측정기를 도입, CT나 MRI 검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근육량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도입된 장비를 이용한 근감소증 검사는 핵의학 과 골밀도검사실에서 7월부터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신북방 시장 진출 돕는다

도-경진원, 위기대응 온라인 수출상담회 열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도내 기업의 수출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언택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5일에는 전주로니호텔에서 신북방(러시아, 동유럽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위기대응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경진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전시회, 수출상당회 등 바이어 대면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활로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을 정례화했다. 지난 4월 3일 인도를 시작으로 10개국 64개 바이어와 도내 116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 행사는 성장세가 완만한 신북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지 바이어 중 화

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지난 19일에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비해 개별부스 9개를 설치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일련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장, 온라인 볼, SNS마케팅, 사이버 상담 등 '언택트 세일즈'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마케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박람회 개최 등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해외바이어와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꼭 필요한 행사"라며, "러시아를 비롯한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하여 전북산품의 판매처를 더욱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에 진행될 온라인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도 수출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jtrade.jonbuk.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한 사항은 경진원 해외시장팀(063-711-2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 중기 '오! 필생' 지원사업 2차 모집

도-경진원, 1차와 다르게 자격 요건 대폭 완화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금유동성 악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전북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전북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반드시(必) 살리겠다(生)는 의미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2회추경에 도비 38억원을 확보, 도내 중소기업 60개사에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1차 모집과 달리 지역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게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기준을 매년 20% 이상 증가에서 '증가율 합산 5% 이상 증가'로 완화했고

매출액 감소기간을 '1~5월'로 확대, 기간 내 연속 3개월 기준을 두어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충격 시점이 상이한 점을 보완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고용규모에 따른 기술인력유출방지지원금을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원부자재구입, 기술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전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매출액 증가율 합산 5% 이상 증가한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같은 기간(1~5월 중 연속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유윤상 기자